“한국전쟁 희생자들 극락왕생 발원합니다”

함안수륙재보존회, 천지명양무차수륙대재 봉행

성낙두 경남지사장

6월 6일 함안 달전사 수륙도량서
1993년부터 호국영령 위로 수륙재
“함안 지역, 달전사 발전” 기원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도 지속 추진


함안수륙재보존회는 6월 6일 함안 달전사 수륙도량에서 ‘천지명양무차수륙대재’를 봉행했다.

6.25 한국전쟁 희생자와 무주고혼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법석이 펼쳐졌다.

함안 수륙재 보존회(회장 원명, 달전사 주지)가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들과 유주무주 고혼들을 천도하는 ‘천지명양무차수륙대재’를 봉행했다.

6월 6일 경남 함안 달전사 수륙도량에서 봉행된 ‘천지명양무차수륙대재’는 (사)대한불교불음원이 주최하고 함안수륙재보존회가 주관했다.

매년 보훈의 달 현충일에 봉행되는 무차수륙대재는 타종과 법고의식, 대령, 신중작법, 괘불이운, 도량건립, 법문, 스님 인사, 사자단작법이 봉행됐고 점심공양 후에는 오로단 작법, 소청상위, 소청중위, 소청하위, 상·중진공, 하위시곡, 하위수계, 회청 및 장엄염불, 봉송회향 순으로 봉행됐다.

이날 무차수륙대재는 만백 대종사의 증명으로 〈수륙무차평등재의 촬요(결수문)〉와 〈천지 명양수륙재의찬요(중례문)〉 등의 의례문에 준해 함안수륙재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봉행됐다.

함안수륙재보존회장 원명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함안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19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치열한 백병전이 반복되면서 아군과 적군의 희생이 많았던 동족상잔의 뼈아픈 현장을 품고 있다”며 “순국선열, 호국영령, UN 참전용사, 민간인 희생자는 물론 적군과 무주 고혼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원혼의 몸을 벗어나 남북통일과 국태민안을 위한 구국의 수호신이 되어 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함안수륙재보존회는 수륙재를 통해 영남지역의 전통적 불교의례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문화적 가치 창달에도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종합 불교예술인 천지명양무차수륙대재의 예술적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고 보존·전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만백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불교에서는 전생과 금생, 내생을 인과응보를 바탕으로 인하여 윤회한다”며 “불교의 전통의식과 절차에 따라 봉행하는 스님들이 모든 영가들을 위로해서 부처님 진리에 따라 극락세계에 갈수 있도록 기원해 주기 바란다”고 설했다.

대종사는 이어 “달전사에서 봉행하는 무차수륙대재는 함안수륙재 보존회에서 전통의식에 의해 집전하니 시방세계의 유주무주 고혼들이 반드시 이고득락할 것”이라며 “이번 무차수륙대재로 인해 우리의 소망인 남북통일과 국태민안이 이뤄지고 함안지역의 발전과 달전사 도량이 중생제도의 수행도량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수륙재보존회는 지난 1993년부터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호국영령들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6.25격전함안민안비’에서 수륙재를 봉행해 왔고 2007년부터는 달전사에서 영남지역의 전통불교의례를 보존하고 전승해 왔다. 현재 함안수륙재보존회는 지속적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금산사 ‘A to Z’, 체험으로 만나다

‘마음 쉬는 토요일’ 진행
미륵전 공포조립체험 등
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양’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는 전통산사 문화재활용프로그램인 ‘마음 쉬는 토요일’ 체험행사를 개최했다.〈사진〉

6월 3일과 4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김제시가 주최하고 금산사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금산사의 국보 미륵전을 중심으로 마련된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금산사 보물찾기, 한지부채 컬러링, 미륵전 판화체험, 미륵전 공포조립체험, 오유지족 다식다도체험, 도자 펜던트 만들기, 보리의 약속 애니메이션 상영, 한지등 만들기, 모악산 사진관, 룰렛게임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산사의 전통문화재들이 대중들의 인식속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문화재들의 역사성과 고유한 가치가 현대적인 언어로 재인식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책무를 다하고자 기획됐다.

참가자 김정주(62, 대전) 씨는 “아이들 뿐만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며 “국보 미륵전에 대해 건축, 미술, 영상, 조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재밌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정형화된 문화해설이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다양한 체험을 선보이고 있다”면서 “주말이면 금산사를 찾아 바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마음의 평안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사생대회 시상식



세종 전통문화체험관(관장 원묵)은 6월 6일 관내 다목적실에서 제1회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어린이날 기념 사생대회 ‘한옥의 봄향기’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시상식에는 사생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와 학부모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은 관장 원묵 스님을 대신해 보의 스님이 진행했다.

이번 사생대회는 총 7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외부 전문가와 내부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 연세초등학교 김탄탄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상장과 30만원의 상금을 수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어린이 총 1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장 원묵 스님은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어린이 여러분의 열정과 재능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내년에는 이번 행사보다 더욱 다양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크고 다양한 행사를 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밀양 보문사 산신각 낙성·산신탱화 점안법회

6월 4일 동진 스님 증명법사로

밀양 보문사(주지 용경)는 6월 4일 산신각 낙성법회와 산신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불교 전통의식으로 봉행된 점안의식은 미타암 동진 스님을 증명법사로 무봉사 천주 스님, 극락암 효진 스님, 지우 스님, 유담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김진량 통도요 대표를 비롯한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산신탱화 점안법회는 그동안 산신각 건립과 산신탱화 조성에 공로가 큰 김영자, 김미화, 정경숙 불자 등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뤄졌다.

밀양 보문사 주지 용경 스님은 그간 보문사의 연혁에 대해 설명하고 “지난 2020년 산신각 불사를 시작했으나 3년여가 지나서야 낙성을 하게 됐다”면서 “불사에 동참하신 불자들 덕분에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밀양 미타암 동진 스님은 “불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과연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으나 주지스님과 불자들의 공덕으로 불사를 회향할 수 있었다”며 “임적하신 창건주 신행 스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성된 산신탱화는 보문사 주지 용경 스님의 발원으로 제작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성 옥천사·고성교육지원청 업무협약 체결

학생·교직원 등 템플스테이 운영



고성 옥천사와 경남 고성교육지원청은 6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 고성 옥천사가 고성 지역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와 경남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숙)은 6월 7일 경내 자방루에서 고성군 관내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 산공 스님, 이미숙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도상 교육지원과 과장, 고정숙 행정지원과 과장, 학교통합지원담당 오정훈 장학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등이 참석했다.

마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업무협약으로 템플스테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마음의 평온을 찾고 학생들에게 우리의 애국관과 호국관을 심어주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숙 교육장도 인사말을 통해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요즘 고성의 교육지원청 관내 교직원들도 심신의 안정을 찾고 학생들도 명상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중심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연화산 환경정화활동을 펼쳤고 옥천사 명상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마가 스님은 고성교육지원청의 템플스테이 참가비용은 옥천사에서 활동하신 독립유공자 스님들의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상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나를 위한 행복여행’ 2023년 교직원 성장 프로그램으로 7월 7일과 13일 두 차례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중 학교폭력 담당교사 및 교무행정팀 직원들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금강사, 김해 사충신 의병 추모 위령재

임진왜란 당시 김해성서
전사한 의병장 4명 추모



김해 금강사(회주 법장)가 ‘김해 사충신 의병 추모 위령재’를 봉행했다.

김해 금강사에서 5월 30일 입재해 6월 4일 회향된 ‘김해 사충신 의병 추모 위령재’는 사충신선양회(회장 법장. 금강사 회주)와 (사)행복1% 나눔재단(회장 조유식)이 주최했다.〈사진〉

김해성 사충신 추모 위령재는 임진왜란 당시 김해성을 포위하고 조총으로 공격한 왜군에 맞서 김해성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송빈, 김덕기, 이대형, 류식 등 4명의 김해성 의병장과 이름없는 의병 1000여 명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해 사충신선양회장 법장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조선시대 김해성을 지킨 의병들은 진정한 호국의 영웅들”이라며 “이들의 희생정신으로 이 나라의 국운이 번영하였기에 이를 영원히 기억하고자 위령재를 올린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려末 고승 나옹왕사 면면 ‘조명’

현담 스님, ‘나옹왕사와 영덕 불교’ 출간

영덕 출신의 고려 말기 고승 나옹왕사의 행장과 영덕 지역 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총망라해 한 권으로 묶은 〈나옹왕사와 영덕 불교〉가 출간됐다.

영덕불교사암연합회장, 영덕불교문화발전연구원장 등 소임을 맡아 영덕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서남사 주지 현담 스님(철학박사)이 펴낸 〈나옹왕사와 영덕 불교〉는 1부에서 역사 속 영덕 불교와 영덕군에 산재한 폐사지를 두루 답사한 현장 기록을 상세하게 담아 영덕 불교의 과거를 재조명했다. 책에서 현재 영덕군청이 조선시대 흥덕사 절터임을 밝혀 영덕이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음을 드러내 주목받고 있다.

2부에서는 나옹왕사의 초출삼계(超出三界) 이익중생(利益衆生) 원력행을 담았다. 나옹왕사의 행장기와 함께 영덕에 있는 스님의 생가터와 탄생 설화지, 스님의 사적비가 세워진 반송정 등을 비롯한 주요 인연처를 자세히 소개하고, 왕사가 머물면서 정진한 전국의 주요 사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한 2020년 영덕 대표 사찰 장육사 인근에 개관한 나옹왕사 기념관에 대한 화보도 곁들여 나옹왕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책 곳곳에서 그림과 글씨에도 뛰어났던 나옹왕사의 주옥같은 게송을 만나는 것은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3부에서는 현재 주재하고 있는 70여 곳이 넘는 영덕의 사찰을 지역별로 나누어 사찰 현황과 함께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 영덕 불교의 현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역사 기록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현담 스님은 그동안 영덕 불교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오면서 나옹왕사의 현창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책 발간과 함께 주도적으로 행사를 이끌어왔다. 현담 스님은 영덕 불교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영덕읍 내에 나옹문학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철완 대구경북지사장